P0458

Ov-Synch 처리시 bST, HCG, Progesterone 투여가 수태율에 미치는 영향

박정준, 이명식, 박수봉[1], 임석기, 전기준, 정영훈, 서국현[1], 나기준, 고대환[2], 이규승[3]

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, [1]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, [2]상지영서대학, [3]충남대학교

한우번식우 사육농가와 사육규모가 확대와 소값 상승으로 인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에 대한 수태율 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이러한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한우 암소에 배란동기화 처리 후 인공수정시 황체기능 강화제인 등을 투여하여 황체기능을 강화시키고, 투여시기에 따라 개체에 대한 신체충실지수(BCS)와 혈중요소태질소화합물(BUN)을 분석하였으며, 또한 투여시기에 따른 혈중 Progesteroner의 변화를 조사하였다. 황체기능강화제의 투여 방법은 HCG 투여구는 배란동기화 처리 후 6일째와 7일째에 각각 1500 IU와 3000 IU를 투여하였고, 투여 후 14일째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P4 분석하였다. Progesterone 처리구는 인공수정 2일전과 수정 후 3일째에 각각 5ml씩 주사하고 12일째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P4 수준 조사하였으며, bST 처리는 배란동기화 처리 후 6일째와 7일째에 각각 500mg 피하주사하고 14일째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P4수준 분석하였다. 또한 대조군은 배란동기화 처리 후 3일째에 생리식염수 5ml을 근육주사하고 7일째에 혈중 P4을 분석하였다. 배란동기화 처리 후 황체기능 개선제를 투여한 결과는 HCG 1500IU와 3000IU 투여구에서 각각 44.8%, 42.8%의 수태율을 보였으며, 대조구에 보다 약 4%의 높은 임신율의 보였으며, 인공수정 후 6일째에 bST를 처리한 군에서는 47.8%로 황체기능 강화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태율이 6.6%가 높게 나타났다.

Key words: ***한우, 수태율, HCG, bST, Progesterone***